

정주진정제의 약리학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김 철 흥

경력	199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3. 3~1994. 2	부산대학교병원 인턴
	1994. 3~1998. 2	부산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마취과 전문의)
	2001.	부산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
	2003.	부산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기금교수
	2004.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치과마취전문) 조교수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602-739		
Tel: +82-51-240-7399, Fax: +82-51-242-7466, E-mail: anekch@pusan.ac.kr		

미국치과의사 협회에서 처음 소개한 “의식진정(conscious sedation)”이란 용어는 치과시술 중 환자에게 제공된 진정단계를 서술한 것으로 환자 스스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유지하고 물리적 자극과 구두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는 억압된 의식의 단계로 정의하였다. 이 의식진정이란 용어는 미국마취과학회에서 “진정/진통(sedation/analgesia)”이란 용어로 대체 되었고, 이를 환자가 적절한 심폐기능을 유지하고, 구두명령이나 촉각자극에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유쾌하지 못한 처치를 견뎌내도록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진정/진통은 경한 진정(항불안)에서부터 전신마취에까지 이르는 진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과정 중에 일부를 이루고 있다. 진정/진통에서 요구되는 목표점은 환자에게 편안하면서, 심폐기능 안정을 유지하고, 수술여건을 증진시키며, 유쾌하지 못한 수술 전, 중, 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진정 기술에는 진통제, 기억상실제, 최면제의 단독 또는 병용투여가 포함된다. 어떤 진정기술이라도 통증, 불안, 그리고 초조의 특이한 원인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치료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진통을 위한 약제의 투여방법은 경구투여, 경점막투여, 근육주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기를 위한 진정 목적으로는 혈관 내 투여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혈관내 투여법에 의한 진정법을 위주로 약리학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다.